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 (마르코 6, 34)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3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금) 19:3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금) 20:0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 라인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10 시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뇨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금) 성시간 후

ONE HEART, ONE SOUL

A Campaign for the Diocese of Hamilton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액: \$110,000 현 모금액: \$86,409 (78.5%)

One Heart One Soul 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교구 사이트 (<https://www.onehearttonesoul.ca/give>) 참조 바랍니다.

※주소 변경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김성수(베드로)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7/21(일) 연중 제 16 주일- 농민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7/23 ~ 8/17 (토) 본당 신부님 휴가 기간중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7/28(일) 연중 제 17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 본당 신부님 하계 휴가 일정

▶7/22(월) ~ 8/17(토)

다음 주 주일 미사(7/28)만 본당 신부님과 함께 합니다.

신부님 휴가 기간동안에는 최성욱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께서 집전하십니다.

◎ 온타리오 한인 성당 골프 대회 일정

주최	일시및 장소	참가비
예수성심성당	7/27(토) 13:00 Glen Eagle G.C.	\$140 (그린피+파워카트+중,석식+상품)
토론토 한인 성당 박상재 빈첸시오 (416.882.8385)	8/12(월) 11:30 Station Creek	\$160 (그린피+파워카트+석식)
캐나다 한인 꾸르실료 (문의: 간사 이정길 테오필로)	8/17(토) 13:30 Glen Eagle G.C.	\$140 (그린피+ 파워카트 + 중, 석식 + 선물)

◎주보는 반드시 집으로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성모회 마늘 판매

- 10LB(large) 80 볼
- medium 은 75 볼

주문은 각 구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 소식▶ 이번주 간식은 김영숙 헬레나 자매님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 7 월 공소 축일자. 축하합니다.

7/ 1 - 엄혜영 에스더 7/11 - 김재익 베네딕도

7/20 - 김은정 마르가리따 7/21 - 신승훈 다니엘

단체 소식▶ 2024 캐나다 한인 남성 제 43 차 꾸르실료 주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가기 위한 형제를 위한 꾸르실료 주말 교육의 신청을 받습니다."

* 기간 : 9 월 5 일(목)~9 월 8 일(일)

*신청 마감: 7 월 28 일 (일)

*신청 및 문의 : 울뜨레아 간사 이정길 테오필로

친교 식사7,8 월은 음식 유지의 어려움때문에 구역식사가 없습니다. 각 구역별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27 명)			
주일헌금	\$1470	교무금	\$215
감사헌금	\$0	성전건립	\$120

삼종기도○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十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람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7 월 본당 세례 축일자(31 명)

7/ 1 아론(송찬) 에스더(김건희), 에스텔(홍연아)

7/ 3 토마스(민천식, 최명근, 이정환)

7/ 5 대건 안드레아(이천우, 이건희, 오유성)

7/ 7 베테딕토 11 세(조은혁)

7/ 11 베네딕토(김영웅, 정철)

7/ 12 베로니카(민경희, 최아현)

7/ 21 다니엘(김민후, 유서진, 이승익, 이승규)
루시아(김순예), 뱌크세다(강영순)

7/ 22 마리아 막달레나(신미숙)

7/ 24 크리스티나(석효정)

7/ 25 제임스(제임스, 장태용, 조원형)
야고보(조광학)

7/ 26 안나(김갑진, 이교성, 배혜란. 최다인)

7/ 29 베아트리체(조하늬)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7/21	박규혜 카타리나	이준규 안드레아 이준우 바오로	1 독서: 김의수 안드레아 2 독서: 박혜영 수산나	김성수 베드로 이재순 데레사
7/28	권희진 요안나	유세진 라파엘 유서진 다니엘	1 독서: 이인선 켈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김의수 안드레아 박혜영 수산나

전쟁같은 삶과 주님 안에서의 쉼

김수원 바오로 신부
무거 성당 주임

한여름 시골집에 가면 어르신들이 밭에 잡초를 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드는 생각이 삶은 전쟁이라 하지만 농사 역시 잡초들과의 전쟁임을 실감합니다. 게으름에 때를 놓쳐 잡초들이 우거지면 여린 채소들을 덮어버려 질식하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억세고 거친 세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착한 신자들이 연상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도 못 짓듯이, 부지런히 내 삶을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억세고 거친 죄악의 잡초들 속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래서 착한 목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착한 목자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쉴 때, 주님 말씀 안에서 위안을 받고 충전하여 세상 죄악의 잡초들 속에서도 휘말리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1)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다하고 당신께 돌아온 사도들에게 휴식을 권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혼잡함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 영육의 휴식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충전하듯 영육도 주님으로 자주 충전시켜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꼭 외딴곳에 물러나 아버지와의 깊은 친교와 일치의 시간을 지니면서 영육을 충전시켰습니다.

영혼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오늘입니다.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시편 34,9)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보고 맛 들이며 쉴 때 신앙인들의 진정한 쉼입니다.

영육의 휴식은 그리 큰일이 아닙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잠시 기도와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 하느님 곁에서 쉬며 육체와 정신이 회복될 시간을 갖는 것이 영육의 휴식입니다. 나의 영육을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돌보고 주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 주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예레 23,4)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한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연중 16 주일 --농민 주일--

(2024. 7. 21.)

제 1 독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23,1-6
화답송 시편 23(22),1-3 ㄴ.3 ㄴㄷ-4.5.6(◎ 1)



후렴.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2,13-18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30-34